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

본문 신 33 : 1 - 17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오늘 본문은 소위 ‘모세의 축복,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예언이 담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 해석 & 적용

1) 장자이지만, 장자를 누리지 못한 르우벤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을 열거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고, 그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즉, 진짜 축복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야곱의 육신적인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한 죄로 인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요단 동편 땅을 받아, 간신히 인구를 유지하여 지내다가, 앗수르의 공격으로 잡혀가고 흩어 집니다. 스스로 복을 견어차고 외면하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하고, 은혜로 주어진 축복을 잘 유지하는 것도 참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2) 장자가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가 된, 유다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에 의해 왕의 홀을 질 자가 될 것이라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배의 소유를 얻는 장자는 되지 못하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요셉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권과 그의 희생적인 섬김은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희생할 때, 진정한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3)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의 특권을 누린 요셉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끝에서 두번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두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차지하는 땅도 매우 비옥한 노른자 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고, 또한, 장차 북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단순한 원리를 보여주며, 동시에 이 은혜가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라면, 어떠한 축복을 원합니까? 리더쉽과 지도력의 유다입니까? 가르침과 선도하는 레위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번성의 축복입니까?